

사회주의경제의 체제전환전략: 급진론과 진화론

-동유럽과 중국 개혁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박 형 중*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동유럽 개혁에 대한 평가 |
| II. 급진전략 | V. 중국 개혁에 대한 평가 |
| III. 진화론적 전략 | VI. 결 론 |

I. 서 론

구소련, 동유럽 및 중국에서의 사회주의 경제개혁은 두 개의 전략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급진주의와 진화론적 접근이 그것이다. 급진주의는 구소련 및 동유럽 지역에서의 실험에서 주도적 정책개념으로 채택되었고 대부분의 서방의 정책 자문자들과 국제금융기구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하여 진화론적 개혁론은 급진주의에 반대하는 학자들에 의한 이론적 개념의 성격이 강하며, 그 옹호자들은 중국 및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개혁을 진화론적 개혁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 두 전략은 경제철학적 배경에서부터 구체적 정책제안에 이르기까지 심대한 발상의 차이를 보여 준다. 여기서는 두 개혁 전략의 기본 발상을 비교하며, 동유럽 및 중국 개혁을 둘러싼 두 진영간의 논쟁의 쟁점들을 정리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동유럽 및 중국의 개혁의 기본논리와 내용을 알아보며, 두 개혁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당면 문제들을 지적하며, 또한 두 개혁의 성과에 대한 상이한 평가들을 알아본다. 이는 북한의 경제개혁 그리고 궁극적으로 남북한 경제 통합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의 연구방향과 쟁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II. 급진전략

탈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경제체제 전환을 위한 급진주의적 전략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재건 및 발전 유럽은행(EBRD) 그리고 이 기관들과 관련되어 있는 서방의 자문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되었다.¹⁾ 이들은 구소련,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전환과정에서 정책자문, (조건부) 금융적 지원, 해당 국가에 대한 압력 행사 등을 통해 깊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사회주의 경제를 급진적이고도 급속하게 시장경제로 전환시키고자 했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90년 1월부터 실행되었던 폴란드에서의 경제 개혁이었다. 폴란드의 개혁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유사한 개혁 실험을 위한 기본 모델을 제시했다.

급진적 개혁 전략은 ‘대폭발(big bang)’, ‘충격요법(shock therapy)’이라고도 불리우고 있다. 충격요법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여러 요법을 한

1) 이에 관하여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20, No. 1 (February 1995), pp. 49-138 ; No. 2 (April 1995), pp. 211-264 ; No. 3 (June 1995), pp. 316~367 ; 비판적 서술로서 Peter Gowan, “Neo-Liberal Theory and Practice for Eastern Europe,” *New Left Review*, No. 213(1995), pp. 3~60.

꺼번에 투입하는 환자에 대한 중대한 수술”²⁾ 또는 “심각한 혼란으로부터 즉각적이고 영원한 안정을 가져다줄 과학적(또는 의학적) 지식의 적용”³⁾을 뜻한다. 경제체제전환과 관련하여 다시 말하면, 충격요법은 “경제체제 이행과 관련한 모든 전선에서 모든 해당 조치들을 동시적이고 급속하게 실시함”⁴⁾으로써, 경제의 모든 측면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자유시장 경제에 가깝게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를 시장경제로 이행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경제안정화, 자유화, 사유화(와 시장제도건설) 등의 세 가지 조치들이다. 이론상으로 볼 때 이러한 조치들은 단계적으로 또는 한꺼번에 취할 수 있다. 즉 속도, 순서, 몇 가지 조치를 동시에 취해야 하는가와 관련한 포괄성,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분야 선택, 그리고 조치의 강도 등에 관하여 다른 정책선택을 할 수 있다.⁵⁾ 충격요법을 특징 지우는 것은 이러한 변화의 모든 조치들을 동시적으로 강도있게 또한 빠른 속도로 진행시킨다는 것이다.⁶⁾ 이밖에도 충격요법 정책패키지는 그 요법이 초래할 불

2) David Lipton and Jeffrey Sachs, “Privatization in Eastern Europe: The Case of Poland,”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1990), pp. 293~341에 대한 평에서 Janos Kornai, “Transformational Recession: The Main Cause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19, No. 1(August 1994), p. 39.

3) Jozef M. van Brabant, “Governance, Evolut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Eastern Europe,” K.Poznanski (ed.), *The Evolutionary Transition to Capitalism* (Boulder: Westview Press, 1994), pp. 157~182.

4) Ibid., p. 161.

5) 이러한 논쟁은 70년대 80년대 발전도상국가들에서의 경제의 안정화, 자유화, 사유화(및 제도건설) 등과 관련한 정책개념과 그 결과에 대한 논쟁에 기초하고 있다. Ulrich Hiemenz and Norbert Funke, “The Experience of Developing Countries with Macroeconomic Stabilization and Structural Adjustment,” Chung H. Lee and Helmut Reisen (eds.), *From Reform to Growth: China and other Countries in Transition in Asia and Central and Eastern Europe* (Paris: OECD, 1994), pp. 75~94.

6) 충격요법을 옹호하는 입장에 입각하여 체제변형 전략을 논한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David Lipton and Jeffrey Sachs, *ibid.*, pp. 293~341 ; David Lipton and Jeffrey Sachs, “Creating a Market Economy in Eastern Europe: the Case of Poland,”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1990), pp. 75~147 ; Jan S. Prybyla, “The Road from Socialism: Why, Where, What, and How,” *Problems of Communism*(Jan-April 1991), pp. 1~17 ; Anders Aslund, *Post-Communist Economic Revolutions: How Big a Bang?* (Washington, D.C.: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가피한 사회적 고통과 동요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보장망의 새로운 건설을 포함한다.

III. 진화론적 전략⁷⁾

진화론적 체제전환전략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첫째로 1990년 이후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에서의 급진주의적 전략의 성과가 당초 예견되었던 것보다 불만족스러웠다. 1992년 Murrell은 “급진적 개혁에 대한 합의가 붕괴하고 있다”⁸⁾고 지적했다. 둘째로, 동유럽 국가들과 중국에서의 경제적 실적에서 현격한 차이가 났다. 동유럽 국가들과는 다른 접근을 취했던 중국에서의 지난 시기 동안의 경제적 성과는 놀라웠다. 진화론적 개혁모델 자체가 중국 개혁의 성공요인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출발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중국에서의 개혁실제가 진화론적 강령을 현실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International Studies, 1992) ; Daniel Gros and Alfred Steinherr, *Winds of Change : Economic Transition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London : Longman, 1995). 각 국가, 각 분야에서 실제로 집행되었던 충격요법의 성과에 대한 충격요법 주장자들에게 의한 포괄적 평가로서 Laszlo Somogyi (ed.),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Transition Process in Eastern Europe* (London : Edward Elgar, 1993).

7) 진화론적 전략은 점진주의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점진주의 전략은 급진주의 전략의 ‘과잉충격’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일련의 제안에 불과하다. 따라서 명백한 이론적 기반과 일관성 있는 정책제안을 갖는 급진주의와는 달리, 점진주의적 전략이나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점진주의적 정책을 취한 것으로 간주되는 헝가리의 경우, 명시적으로 점진주의를 선언한 적도 없다. 러시아의 경우 급진적 처방이 시도되었으나, 실제에서는 여러 정치적 저항 때문에 그 처방은 수정되었다. Marie Lavigne, *The Economics of Transition : From Socialist Economy to Market Economy* (London : McMillan Press Ltd., 1995), pp. 118~121.

8) Peter Murrell, “Evolutionary and Radical Approaches to Economic Reform,” K. Poznanski (ed.), *Stabilization and Privatization in Poland* (London :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3), p. 216.

급진주의적 개혁 전략이 일련의 거시경제정책을 논리의 핵심으로 한다면, 진화론적 전략은 경제제도와 미시경제적 발전을 논리의 핵심으로 한다.⁹⁾ 따라서, ‘충격요법적’ 거시경제정책을 반드시 배제하지는 않지만, 진화론적 개혁발상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다. (1) 구공산주의 시절의 모든 경제제도를 일거에 붕괴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낡은 제도 중에서 과도가 동안 활용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또한 낡은 제도하에서 성장한 경제주체가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므로 구제도의 급격한 붕괴는 경제붕괴를 초래할 뿐이다. (2)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국가 부문과 사적 부문으로 이루어진 이중경제 구조를 유지시키는 것이 좋다. 국가 관리 경제 분야를 일정기간 유지하면서-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서-새로운 사적 부문 활동과 그를 위해 필요한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촉진시켜야 한다. (3) 사적 기업과 시장제도의 일정한 성장이 있는 후에야 시장과정을 통한 국가 기업의 점진적 사유화가 가능하고 바람직하다.¹⁰⁾ 달리 말하면 다음과 같다. 즉 개혁은 새로운 자본주의 부문에 사회가 자원을 집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구 국가부문은 아직 그대로 둔다. 이러한 첫 단계는 장기적으로 생산적 시장경제의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내는 데 필요한 인간적 사회적 자원들을 가장 빠르게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자본주의 부문이 충분히 성장하게 되면 이는 혁명의 엔진이 될 것이다. 이 부문이 산출해내는 인적 금융적 자원이 구 국가부문을 개혁하고 사유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부문 사유화를 이행 초기에 실시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자본주의 부문이 충분히 성장하여 이 부문이 초래하는 사회적 변화를 기초로 단행하는 것이 국가부문 사유화를 보다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¹¹⁾

9) 급진론과 진화론적 발상의 차이에 대해서는 박형중, “경제체제 전환의 급진론과 진화론-이론상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종원 편, 「통일경제론」(1997년 중반기경 도서출판 해남 발간 예정).

10) Murrell, *ibid.*, p. 218.

11) Peter Murrell, “What is Shock Therapy? What Did it Do in Poland and Russia?” *Post-Soviet Affairs*, Vol. 9(April-June 1993), No. 2, pp. 124~245; Janos Kornai, *The Road to a Free Economy: Shifting from a socialist system. The Example of Hun-*

IV. 동유럽 개혁에 대한 평가

1. 거시경제 상황과 평가

단숨에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듯 보였던 개혁은 초기에 대부분 상당한 지지를 누렸다. 폴란드의 급진적 개혁의 주창자들은 충격요법적 안정화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3년 내에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안정화 정책의 충격은 보다 제한적이고 단기간에 걸치는 현상으로 시장형 정책의 실시 이후에는 급속하게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했다.¹²⁾ 그러나 개혁이 실시되기 시작한 지 5년이 지난 1995년의 시점에서 볼 때, 실제 개혁의 성과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었다. 그 주요한 문제는 인플레이션, 재정불균형, 대외불균형, 경기후퇴 등의 문제였다.¹³⁾ 구소련 동유럽 국가들에서 실시된 체제전환정책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두고 경제학자들 내부에서 논쟁이 시작되었다. 급진주의적 경제정책을 주장했던 학자들은 충격요법 처방, 즉 정책방향 자체에는 근본적 문제가 없으며 그 정책은 성공했다고 주장한다. 진화론적 경제학자들은 체제전환 경제가 직면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급진

gary(1990) ; K. Poznanski, "Restructuring of Property Rights in Poland : A Study in Evolutionary Economics," *East European Politics and Societies*, vol. 7, no. 3 (1993) 등도 이러한 논리전개에 따르고 있다.

12) Lavigne, *ibid.*, p. 121.

13) 이에 관하여 다음 논문 참조. Stanislaw Gomulka, "Economic and Political Constraints During Transition," *Europe-Asia Studies*, Vol. 46, No. 1(1994), pp. 89~106 ; Lavigne, *ibid* ; Anders Aslund, "Lessons of the First Four Years of Systemic Change in Eastern Europe,"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19, No. 1(August 1994), pp. 22~38 ; Barry P. Bosworth, and Gur Ofer, *Reforming Planned Economies in an Integrating World Economy* (Washington, D.C. :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5) ; Michael Ellman, "Transformation, Depression, and Economics : Some Lesson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19, No. 1(August 1994), pp. 1~22.

적 체제전환전략 자체라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먼저 급진적 개혁가들은 급진적 개혁과 인플레이션통제 성공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Aslund는 통화팽창과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구공산당료들의 극도의 비생산적 이득추구 행위에서 찾고 있다. 즉, 국영기업의 운영자인 구 공산당료들이 기강이 무너져내려 취약해진 국가에 로비를 벌여 보조금, 은행대출을 받아내고 있으며, 수출입상의 특권 등을 통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급진적 안정화 정책을 통하여 기업에게 경성예산제약을 부과하고 정치적 민주화를 통하여 구공산당료의 권력과 부패행위를 제한하는 데 성공할수록, 인플레이션 통제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⁴⁾

또한 급진개혁가들은 급진적 개혁과정에서 나타났던 급격한 생산감소, 실업, 실질임금 저하 등을 크게 우려할 만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들은 이러한 현상들을 당연히 지불되어야 하는 체제전환 비용의 일종으로서 불가피하고도 바람직한 현상으로 간주한다. 첫째로 경제안정화 정책을 쓰는 경우에 경제 긴축 때문에 경기후퇴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며 바로 경기후퇴가 안정화 정책의 목표라는 것이다. 둘째로 생산감소는 과거 사회주의 경제의 유산을 청산하기 위한 바람직한 과정으로 간주된다. 과거에, 실제 수요는 부재하나 단순히 계획만을 채우기 위해서 산출되었거나 그 생산비용이 세계시장 가격을 초과하는 등의 상당한 비율의 쓸모 없는 생산이 시장경제에서는 수요를 찾지 못하여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공업 부문은 축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생산감소는 시장이 기능하기 시작하는 신호, 즉 자원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유익한 신호라는 것이다.

생산감소, 소비수준 저하, 실업 등은 우려할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필요이상으로 심각해졌다'면 그 원인을 정책의 오류보다는 정책의 적인 데 있다고 한다. 즉 첫째로 통계에 의한 왜곡이다. 그것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과거 생산 목표 달성을 보고하기 위해서 과잉업적보고를 하

14) Aslund, "Lessons of the First Four Years...", pp. 26~31.

던 국가기업이 이제 시장적 조건하에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하향업적 보고를 한다. 또한 새로운 사적 부분이 통계에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생산감소는 통계상으로 과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복지 수준 하락도 통계상으로 과장된다. 통계상의 실질임금지표는 예를 들어 줄 서서 기다리는 비용의 하락, 원하고 싶은 것을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의 증대 등과 같은 개혁이 초래한 복지 증대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과거에는 실질임금을 계산하는 소비재 가격의 기준치가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로 생산감소는 주로 외생적 충격 때문이다. 원유가격 상승, 코메콘의 무역체계 붕괴, 소련 붕괴 등이 경기 후퇴의 중요한 원인이다. 셋째로 생산감소와 경기후퇴는 서방의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¹⁵⁾

진화론적 개혁가들은 생산감소, 실질임금 하락 등을 보다 심각한 현상으로 보고 있다. 또한 생산감소, 경기후퇴는 피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그것을 초래한 책임이 급진개혁전략 자체에 있는 것으로 본다. Kornai¹⁶⁾는 경기후퇴가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한다. 즉, 기술적 후진성, 빈곤의 확산과 심화, 보건서비스 저하, 교육서비스 악화, 하부구조의 상태 악화 등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경기후퇴 때문에 사적 부분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서 경기후퇴 회복 전망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주민 실질임금의 상당한 하락, 과거에는 부재했던 실업의 등장 등은 경제적 불만을 증대시켰고 이것이 앞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생산감소와 경기후퇴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관련하여 진화론적 개혁가들은 급진개혁 전략이 초래한 제도적 공백상태, 그리고 부적응 상태 등을 지적하고 있다. 모든 탈공산주의 국가들은 급진적 정책변화, 그리고 급격한 건축정책에 적응할 수 없는 제도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중요한 것

15) Jeffrey Sachs, *Poland's Jump to the Market Economy*, (Cambridge, Ma. : The MIT Press, 1993) ; Jeffrey Sachs, "Consolidating Capitalism," *Foreign Policy*, No. 98 (Spring 1995), pp. 50~64 ; Gomulka, *ibid.*

16) Janos Kornai, "Transformational Recession...", pp. 58~60.

은 은행제도가 저발전하여 생산재편을 통해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신용을 제공할 수 없었다. 탈공산주의 개혁가들은 이러한 제도 구조를 급격하게 대체하려고 했다. 그 결과는 새로운 제도가 들어서지 않은 상태에서 구제도가 더욱 악화되었고 또는 과편화되었다. 특히 급격한 사유화는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급격한 사유화 정책이 표명되어 기업에 대한 소유권 공백 상태가 발생했다. 이러한 체제의 변화와 함께 경제행위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불확실성은 증대했고, 따라서 이들은 생산을 감소시키고 자본투자를 회피했다는 것이다. 또한 급진개혁가들이 과거 공산주의 체제를 완전히 실패한 체제로 보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도와 정책을 과도하게 회피했다는 것이다.¹⁷⁾ 다시 말해 과거의 조정기구가 사라지게 되자 제도적 공백상태가 초래되어 생산이 갑자기 저하했다. 명목적 소유권과 실질소유권의 분리 때문에 인센티브가 왜곡되고 비효율적인 것, 그리고 명목상 여전히 국가소유인 은행에 대한 통제를 조급하게 포기한 것 등이 장기간에 걸치는 경기하강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생산은 경제행위자가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게 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승하게 된다.¹⁸⁾

2. 구조조정, 성장정책

급진적 개혁가들에게 있어서 가장 직접적 목표는 사회주의 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따라서 급진개혁가들의 개혁패키지는 경제에 대한 국가 간섭을 가능한 한 제한하고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시장기구의 ‘자연적’ 과정에 맡겨서 해결하고자 하는 발상을 담고 있다. 급진적 개혁정책의 직접적 목표는 단기적인 차원에서 생활수준 보호와 국가경제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었다.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에 의해서 구사회주의 경제 시절의 왜곡된 자원배분이 시정되기만 하면, 서방에서 이미 입증된 것

17) Poznanski, "Institutional Perspectives...", pp. 3~30.

18) Holger Schmieding, "From Plan to Market : On the Nature of the Transformation Crisis," *Weltwirtschaftliches Archiv : Review of World Economics*, Band 129 Heft 2(1993), pp. 216~253.

으로 보이는 시장경제의 효율성 때문에 경제성장은 자동으로 일어날 것으로 간주했다. 때문에 이러한 목적의 수행을 위해서 취해진 조치가 심각한 경기후퇴와 경제규모 축소 등을 초래하더라도 그것은 공산주의 경제의 왜곡된 구조를 청산하기 위한 것으로서 고통스럽지만 환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정긴축, 금융긴축, 임금통제 등을 통한 경제의 안정화, 무차별 경성 예산제약 부과를 통하여 새로운 시장환경에 적응할 수 없는 기업들의 도태, 그리고 가능한 빠른 속도의 사유화, 금융제도 등의 건설을 통해서 경제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충격요법에 의해서 초래된 상황은 매우 혼란된 상황이고, 국가의 전체적 경제 장악력, 그리고 국가하부기구의 행정능력도 매우 약하기 때문에 국가가 선택적으로 경제에 개입할 능력도 없다. 또한 국가가 산업정책 등으로 산업재조정과 기업재편에 참여하게 되면 국가는 수많은 이익집단과 기업들로부터의 엄청난 로비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아직 구체제의 당료들이 남아있고 이들은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특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한다. 또한 대부분의 국영기업은 기술의 후진성, 과잉 공업화 때문에 도태되는 것이 마땅하며, 이러한 국영기업에 대한 지원은 사적 부문에 자원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해한다. 따라서 이 과정에 국가에 의한 케인즈적인 유효수요 증대 정책, 국가가 산업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산업정책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국가가 간섭하더라도 그것은 국제금융기구(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등)의 지침에 부합해야 한다.

급진적 개혁정책이 말하고 있는 개혁의 중국목표로서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은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 정책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며, ‘수출주도 성장전략’에 부합하도록 국내 경제를 재편하여 외부의 원조없이도 성장할 수 있는 개방경제를 건설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급진적 개혁가들은 개혁 국가들의 성장전망을 국내 수요진작, 국가에 의한 투자 및 산업 정책이 아니라 서유럽경제로의 통합에서 찾고 있고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 매우 낙관적 전망을 가지고 있다.¹⁹⁾ 급진개혁 정책에 대한 비판가의 말

19) Sachs, *Poland's Jump...*, pp. 96~114. Sachs는 다음과 같이 전망한다. “가난한 국가들이 사적 소유와 자유무역을 기초로 외부세계에 개방하게 되면, 이 국가들은 보다

을 빌려 이 모델을 특징지워보면 “국제적 경제활동세력에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개방된 국가 그리고 ‘지구적 주류 경제’의 자원이 흘러들어오는 데 적합한 형태의, 세계화된 제도체계를 가진 국가”²⁰⁾이다. 이러한 상황이 완비되면 경제성장은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²¹⁾

급진개혁의 반대자들은 이러한 성장정책 제안과 전망에 대하여 매우 회의적이다. 반대자들에 따르면, 급진개혁이 의도적으로 초래하고 있는 심각한 경기후퇴와 국가의 간접 회피의 결과는 기업 도산에 의한 국내 산업기반의 와해, 저투자, 또한 국내 수요 감축에 의한 사적 부문의 저성장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자본의 직접투자는 이루어질 수도 없다. 동아시아 등의 수출주도성장 성공 사례를 볼 때 국가의 적극적 산업정책과 특정 산업에 의한 지원 등이 없이 수출주도성장이 성공할 수도 없다. 또한 급진개혁의 긴축정책의 효과는 국영 대기업으로 이루어진 국내 선진기간산업의 도산과 저임금의 실현이기 때문에, 국가의 산업정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국제분업에 참여하면 저임금, 저기술 산업에 특화할 수밖에 없다.²²⁾ 또한 아직 금융제도 등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은 상태이고, 국내 자본과 성숙한 사적 기업가들이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국가기관과 국가정책이 그 역할을

부유한 국가들, 특히 인접한 부유한 국가들에 수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국제적 경험에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가난한 국가들은 부자 국가들보다 빠르게 성장하며 그리하여 생활수준의 차이를 줄이고 있다” Sachs, Ibid., p. 96.

20) Gowan, Ibid., p. 9.

21) Gros and Steinherr, Ibid., p. 90.

22) Dic Lo, “Economic Theory and Transformation of the Soviet-type System : The Challenge of the Late Industrialisation Perspective,” Ha-Joon Chang and Peter Nolan (eds.), *The Transformation of the Communist Economies : Against the Mainstream* (New York : St.Martin’s Press, 1995), pp. 78~112 ; Lance Taylor, “The Postsocialist Transition from a Development Economics Point of View,” Andres Solimano, Osvaldo Sunkel, and Mario I. Blejer (eds.), *Rebuilding Capitalism : Alternative Roads after Socialism and Dirigisme* (Ann Arbor :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4), pp. 21~56 ; Alice Amsden, “Can Eastern Europe Compete by ‘Getting the Prices Right’? Contrast with East Asian Structural Reforms,” Solimano, Sunkel, and Blejer (eds.), Ibid., pp. 81~110 ; Gowan, Ibid., pp. 3~59.

대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제도 및 자본시장이 제대로 육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진개혁 정책의 강력한 긴축 정책의 결과로 얼마간의 구조조정과 지원을 받으면 얼마든지 시장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도 단기 자본동원의 불가능성 때문에 도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전혀 가망없는 기업과 가망성있는 기업을 구별하여 과도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적극적 투자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²³⁾

또한 현실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급속한 사유화 정책은 매우 해로운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한다. 먼저 국내 자본과 성숙한 기업가의 부재, 그리고 경기후퇴 등의 상황에서 수많은 국유기업의 급속한 사유화 정책의 추진은 사유화 대상 기업의 자본가치를 급속히 저하시키며 또는 수많은 기업을 사실상 폐기처분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또한 외국자본에게 국내 산업기반을 매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국영 대기업의 사유화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국영기업이 앞으로 상당기간 국가 경제의 기간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하여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급속한 사유화 정책 표명, 그러나 현실에서 사유화 지체라는 모순 때문에 국영기업에 대한 소유권 부재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급속한 사유화 정책의 표명과 국유기업에 대한 방임정책 때문에 대부분의 국영 대기업들은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적극적 구조조정이나 투자에 대하여 대단히 소극적이며 오히려 현재의 기업관리자 및 고용자의 단기 순익 증대에 맞추어 행동함으로써 사실상 탈자본화현상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불가피 상당기간 국가 소유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국영 대기업들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감독과 규율의 역할을 취해야 한다. 국영기업의 생산활동과 투자가 위축된 상태, 그리고 실업과 저임금 등 때문에 국내 수요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적 부문의 성장도 힘들기 때문에, 사적 부문의

23) Van Brabant, Ibid., pp. 157~183 ; Alec Nove, "Economics of Transition : Some Gaps and Illusions," Beverly Crawford (eds.), *Markets, States, and Democracy : The Political Economy of Post-Communist Transformation* (Boulder : Westview Press, 1995), pp. 227~245 ; K. Poznanski, "Political Economy of Privatization in Eastern Europe," Crawford (eds.), Ibid., pp. 204~226 ; Taylor, Ibid., pp. 64~87.

육성책의 일환으로서도 국영기업에 대한 국가의 관리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²⁴⁾

V. 중국 개혁에 대한 평가

동유럽, 구소련 지역에서의 정책들의 주조는 급진주의적인 것이었고, 급진주의적 정책의 집행에 급진주의적 개혁 옹호자들이 직접 참가했다. 동유럽, 구소련 지역에서 진화론적 개혁이론들은 단지 하나의 이론상의 대안으로서만 학자들 사이에 존재했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은 자신이 직접 정책형성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거의 동일한 맥락의 철학과 정책이 중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거기에서 중국에서의 지속적 고도성장은 동유럽, 구소련 지역에서의 심각한 경기 후퇴와 극명한 대비를 보였다. 러시아와 동유럽 지역에서는 생산감소가 15퍼센트에서 50퍼센트에 달함에 비하여 중국은 지난 10년간 8퍼센트 이상의 국내총생산 성장을 기록했다. 이러한 대비와 관련하여,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에 있어서 급격한 생산감소와 사회적 요동이 반드시 불가피한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쟁이 전개되었다. 진화론적 이론가들은 중국 개혁의 성공은 개혁정책이 올바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 정책의 내용이 진화론자들의 이론적 그리고 정책적 주장과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중국의 경험으로부터의 교훈이 소련 및 동유럽 국가에 참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에 대해 급진적 개혁이론가들은 중국의 경험은 독특한 것으로써 동유럽 및 구소련 지역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 다시 말해 중국의 개혁이 성공한 원인은 정책개념이 옳아서가 아니라 중국의 여러 출발조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24) Peter Murrell, "Privatization Complicates the Fresh Start," *Orbis* (Summer 1992), pp. 323~332; Barry Ickes and Randi Ryterman, "Credit For Small Firms, Not Dinosaurs," *Orbis* (Summer 1992), pp. 333~348.

중국 개혁에 대한 급진개혁의 주장자들의 주요한 논점은 다음과 같다. 즉 중국의 경험은 중국에 특유한 것으로 유럽에서는 모사될 수 없다는 것이다. 급진주의자들은 중국과 동유럽 국가들의 외적 내적 여러 조건이 매우 달랐으며,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여러 조건들에서 중국경제가 구소련, 동유럽 국가 경제보다도 훨씬 유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첫째로 조건들이 유리했기 때문에 중국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했더라도 중국경제는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로 중국경제의 초기 조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중국식 개혁은 중국에 얼마간 적절한 정책이었지만 조건이 달랐던 구소련 동유럽 국가에는 적절하지 않는 정책이었다는 것이다.²⁵⁾ 이와 관련하여 다소간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다.

개혁 출발 당시의 중국과 구소련 동유럽 국가들의 거시경제적 조건이 달랐다.²⁶⁾ 구체적으로 보면, (1) 70년대 80년대 들어서 중국 경제는 안정적이었고 꾸준한 성장을 지속했다. 그러나 유고와 헝가리를 제외하고 80년대 동유럽 국가 경제는 정체했었고 이 상태에서 시장경제적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실험을 해야 했다. 따라서 점진적 자유화 조치를 위해서 동원될 수 있는 자원의 양은 중국에 비해서 한층 희소했다. (2) 중국에서의 성장은 거의 국내저축을 통해서 동원되었고 대외부채 비율도 낮았다. 동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1980년대 국내투자는 외국자본에 의존했고 따라서 대외부채 비율이 높았다. (3) 외국자본에 대한 투자 의존도는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 중국이 낮았지만 후자는 전자에 비해 서방의 시장과 기술에 대한 접근이

25) Martin Raiser, "Lessons for Whom, from Whom? The Transition from Socialism in China and Central Eastern Europe Compared," *Communist Economies & Economic Transformation*, Vol. 7, No. 2(1995), pp. 138 ; Juliet Johnson, "Should Russia Adopt the Chinese Model of Economic Reform?"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27 : 1(1994), pp. 59~75 ; 이와는 반대로 러시아가 중국의 개혁 경험을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해서, Marshall Goldman, "The Chinese Model : The Solution to Russia's Economic Ills?," *Current History*(Oct, 1993), pp. 320~324.

26) Raiser, *Ibid.*, pp. 138~139 ; Marshall I. Goldman and Merle Goldman, "Soviet and Chinese Economic Reform," *Foreign Affairs*(Winter 1987/88), pp. 551~573.

유리했다. (4) 중국은 60년대 70년대에 재정균형을 이루고 있었지만 구소련 동유럽 국가들은 1980년대에 재정적자가 증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중국과 구소련, 동유럽 국가의 경제구조의 차이다.²⁷⁾ (1) 1978년 중국은 전체 노동력 중에서 농업인구의 비율이 71퍼센트였으나, 러시아, 폴란드의 경우에는 전체 주민의 거의 100퍼센트가 계획경제에 포섭되어 있었다. 중국의 경우는 농업 노동력이 비국영부문으로 이동하면서 비국영부문이 성장하고 경제잉여를 생산해 낼 수 있었다. 따라서 국영부문을 그대로 둔 채로 비국영부문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소련, 동유럽의 경우에는 국가부문 고용과 자원배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만, 즉 국영부문의 극적인 축소와 생산감소 등을 통해서만 비국영부문의 성장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이다. (2) 중국은 애초부터 구소련 및 동유럽에 비해 훨씬 분권적인 경제 및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중국의 계획경제는 구소련 및 동유럽 국가에 비하여 포섭력이 훨씬 약하였다. 공업 총생산과 공업 총고용에서 국영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구 소련, 동유럽보다 중국에서 더 낮았고, 구소련 동유럽은 거대 기업 중심이었으나 중국에서는 중소기업 비율이 거의 절반에 달했다. 또한 중국의 경우에는 대약진운동과 문화혁명의 결과로 중앙의 정부 및 당기구가 훨씬 약화되어 있었다. 따라서 개혁이 수반하는 자원배분의 변화와 정치·행정적 적응력이 중국의 경우가 훨씬 높았다. (3) 구소련, 동유럽 국가들이 대외 무역에서 코메콘 무역과 소련의 붕괴를 처리해야만 했던 것에 비해 중국의 대외경제환경은 훨씬 안정적이었고 우호적이었다. 특히 중국 본토와 해외 화교 사이의 가족적 연대는 중국 경제의 대외지향경제성장정책의 성공에 기여했다.

정치적 조건에서 보면 (1) 중국의 개혁은 중앙권력이 안정적인 상태에

27) Raiser, Ibid., pp. 138~140 ; Jeffrey Sachs and W.T.Woo, "Understanding the Reform Experiences of China, Eastern Europe and Russia," Lee and Reisen (ed.), Ibid., pp. 23~31 ; Joseph C.H. Chai,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 the Chinese Experience," *Communist Economies & Economic Transformation*, Vol. 6, No. 2 (1994), pp. 231~245 ; Wolfgang Quaisser, "Vergleich der wirtschaftlichen Transformation in Osteuropa und Ostasien," *Osteuropa-Wirtschaft*, 40.Jhg.(4/1995), pp. 279~298.

서 시작되었고 또한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점진주의적인 정책변화와 제도변화가 가능했으나, 동유럽의 개혁은 정치적 격변 및 구공산체제의 붕괴와 함께 시작되었고 따라서 점진주의적 제도 변화의 가능성이 없었다.²⁸⁾

(2) 중국에서의 점진주의는 어떤 일관된 이론에 기초해서 취해진 정책이 아니라, 중앙에서 보수파와 개혁파 간의 충돌과 권력투쟁 과정에서의 생긴 우연한 시행착오의 결과다.²⁹⁾

이에 대하여 진화론적 개혁의 옹호자들은 중국과 동유럽 국가들 간에는 발전격차가 존재하지만 중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의 중요한 원인은 중국의 개혁정책 자체에 있다고 주장한다.³⁰⁾ 저발전과 고도발전 경제의 경제구조에 따른 조정비용의 차이로 중국 및 동유럽 국가의 체제전환 정책 및 비용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잘못되었다.³¹⁾ 중국의 개혁은 물론 시행착오적 정책의 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볼 때 하나의 정합적 정책 패키지를 이루고 있다. 중국에서 취해진 정책의 순서가 다른 나라에서 그대로 반복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개혁의 핵심 요소들은 다른 나라들에서 채택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1) 비국영기업의 대량 진입, (2) 국영기업 사이, 그리고 국영기업과 비국영기업 사이에서의

28) Anders Aslund, "Soviet and Chinese reforms-why they must be different?" *The World Today*(November 1989), pp. 188~191 ; Peter Ferdinand, "Russian and Soviet Shadows over China's future?" *International Affairs* 68-2(1992), pp. 279~292 ; Wlodzimierz Brus, "Marketisation and democratisation : the Sino-Soviet divergence,"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17(1993), pp. 423~440 ; Baohui Zhang, "Institutional Aspects of Reforms and the Democratization of Communist Regimes,"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26, No. 2(June 1993), pp. 165~181.

29) Sachs and Woo, *Ibid.*, pp. 31~33.

30) Ronald I. McKinnon, "Financial Growth and Macroeconomic Stability in China, 1978~1992 : Implications for Russia and Eastern Europe," Poznanski, *Evolutionary Transition...* *Ibid.*, pp. 97~134 ; Barry Naughton, 'China's Economic Success : Effective Reform Policies or Unique Conditions?' Poznanski, *Ibid.*, pp. 135~156.

31) Barry Naughton, "Reforming a Planned Economy : Is China Unique?" Lee and Reisen (eds.), *Ibid.*, pp. 65~68.

경쟁의 급격한 증대, 3) 국가가 국영기업에 시장경제식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국영기업의 실적 개선 등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대가격이 새롭게 정립되고 경제자원의 통제권이 정부로부터 가계로 이전된다.³²⁾

진화론적 개혁이론가인 중국연구가 Naughton은 중국과 동유럽 국가 경제의 발전격차를 인정하고 또한 그것이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했음을 인정하지만, 개혁 성공의 주요 원인은 정책이 올바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체제이행기의 국민경제들은 유사한 경험들을 하게 되며 국가의 정책이 그 유사한 요소를 어떠한 방식으로 통제하는가에 따라 경제는 성장할 수도 붕괴할 수도 있다. 체제이행기의 모든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3가지의 핵심적 과정을 경험한다. 즉, 새로운 생산자의 진입, 국유기업 행태의 변화, 재정 수입의 붕괴³³⁾ 등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선택된 경제 정책에 따라 이 세 가지 과정이 중국의 경험처럼 “선의 순환”을 이룰 수도 있고, 동유럽의 경험에서처럼 “악의 순환”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험에서 볼 때, 상호작용하여 “선의 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조합의 구성요소는 다음의 네 가지이다. 과거 보호되던 부문에 무제한의 (신규기업) 진입, 국영기업의 점진적 자율성과 인센티브 구조 개선, 시장 청산 가격이 작용하는 영역의 허용, 적절한 거시경제적 규율 등이다.

초기의 가장 주요한 요소는 공업에 대한 국가독점의 제거 또는 완화이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면 계획경제에 내장되어 있는 왜곡-독점이윤보장, 경공업·서비스 분야에서의 중·소기업 부재 등-때문에 급속한 (신규기업) 진입이 일어나고 그에 의해서 경제의 시장화를 촉진시키는 강력한 경쟁이 발생한다. 시장환경의 증대는 국유 부문이 실적을 개선하도록 하는 압력을 발생시킨다. 국유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국가의 감독과 시장압력은 이들의 실적을 개선시킨다... 이러한 이행 조치들은 자원에 대한 통제를 정부로부터 가계에 이전시키며 동시에 소비수준을 증대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32) John McMillan and Barry Naughton, “How to Reform a Planned Economy : Lessons from China,”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Vol. 8, No. 1(1992), p. 131.

33) Naughton, *Ibid.*, p. 60.

러한 조치들은 전통적 조정기구의 상대적 중요성을 감소시킨다. 그리하여 전통적 조정기구를 궁극적으로 폐기함에 있어서의 충격을 현저히 완화시킨다.³⁴⁾

이에 대하여, 급속한 개혁은 과거 제도를 파괴하는 데만 지나치게 주목하면서, 제도붕괴, 자가 발전하는 재정 및 거시경제적 붕괴 등에 대해서는 주의를 태만히 했다는 것이다. 구소련,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악의 순환”이 일어났다.

체제이행이 국유부문에서의 가격과 인센티브의 급격한 변화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잘못된 출발을 하는 것이다. 국유기업의 이윤은 급격히 하락한다. 국유기업 부문의 실적이 나빠졌기 때문에 재정수입이 붕괴한다. 재정수입의 붕괴가 전체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현저히 어렵게 한다… 정책입안자들은 재정위기를 처리하는 데 그리고 또한 재정수입 원천을 찾는 데 온정신을 쏟아야 한다. 그들이 성공하더라도 다른 종류의 제도적 실패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다른 이유 때문에 실물 생산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체제이행 비용이 과도해지기 시작한다. 경제위기와 불확실성 때문에 사적 부문의 성장이 저해되고, 타격받는 기업에 대한 보조가 늘어나면서 거시경제적 상황의 악화와 인플레이션 증대가 발생한다.³⁵⁾

이러한 상이한 두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교훈의 한 가지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³⁶⁾ 즉, 가격 및 인센티브 체계의 급진적 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는 새로운 공공재정체계의 건설 능력이다. 이와 반대로, 중국의 “시행착오”식 접근은 체제이행 과정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재정개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국유기업의 수입은 보다 점진적으로 하강하며 따라서 정책입안가들은 이 문제와 다른 긴급한 경제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 보다 시

34) Ibid.

35) Ibid., pp. 62~63.

Ibid., p. 70.

간적 여유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경험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제도가 보다 안정적일 때 개인들은 자신의 기대들이 보다 빈번히 충족되며, 상호적으로 보다 이득이 되는 거래가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한다. 높은 안정성은 가게 저축을 늘리고 화폐수요를 증대시키며, 따라서 정책입안가는 거시경제 문제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보다 많은 여유를 가지게 된다.³⁷⁾

VI. 결 론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경제 체제전환과 관련하여 급진주의와 진화론적 개혁가 간의 우열과 논쟁에는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급진주의적 이론가들은 각국에서 실제로 집행된 정책에 대한 주요 자문자이였을 뿐 아니라 그 구체적 집행과정에서도 참가했다. 따라서 정책 제안 및 집행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의한 실적평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그들의 평가는 대체로 성공을 과장하는 측면을 갖는다. 점진주의적 이론가들은 구소련 및 동유럽에서 실제로 취해진 정책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더욱 적절한 정책들’을 제안한다.

둘째로, 두 전략은 단순한 합리적 경제정책 상의 대립을 넘어서는 서로 상충하는 신념체계와 목적에 입각하고 있다. 다시 말해, 두 전략의 비교는 단순한 테크노크라트적 합리성의 수준에서는 평가될 수 없는 가치판단 차원의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 급진주의적 이론가에게는 과거 공산주의적 정치 및 경제구조를 하루 빨리 파괴하여 서방식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급진주의적 개혁전략은 그러한 이데올로기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점진주의적 이론가들도 서방식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최종목적으로 삼고 있지만 그러한

37) Ibid., pp. 69~70.

이데올로기적 목적의 실현보다는 우선 당장의 생활수준 급락의 방지와 성공적인 경제성장이라는 목표에 관한 경제전략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녔다. 급진주의자들에게는 과거 체제의 모든 것이 대단히 혐오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하는 것 자체 만으로도 성공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급진주의자들은 중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개혁을 부정적으로 본다. 그들에게는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중국공산당이 계속적으로 집권하고 있다는 부정적 사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구제도의 활용과 이중경제의 유지 등을 옹호하는 진화론자들은 진화론적 전략의 집행 주체가 되는 정치세력과 정치체제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공산당이 지속적으로 집권하더라도 중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바에서 그것을 문제삼지는 않는다.³⁸⁾

셋째로, 전략의 개념적 도면과 전략집행상의 충분성과 관련된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 성공과 실패를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급진주의적 개혁전략의 기본 개념은 학자들 간에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그 전략이 구체적으로 집행되는 국가의 경제환경, 정치적 관계, 대외환경 등이 다르며 또한 그에 따라 국가마다 정책집행의 포괄성, 속도, 강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급진주의자들은 개념이 올바름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상의 불충분성 때문에 개혁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급진적 개혁을 충분한 정도로 실천한 폴란드와 체코 경제가 경제균형을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또한 가장 빨리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한 것에 대하여, 개혁의 비대담성과 불충분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 그리고 더 나쁜 경우로서 무정책 상태로 표류

38) 러시아와 관련하여 이러한 대립에 대해서 다음 참조. Anders Aslund, "Prospects of the New Russian Market Economy," *Problems of Post-Communism*, Vol. 41, Special Issue(Fall 1994), pp. 16~20; James Millar, "The Failure of Shock Therapy," *Problems of Post-Communism*, Special Issue(Fall 1994), Vol. 41, pp. 21~25; 그리고 Marshall Goldman, "Is This Any Way to Create a Market Economy?" *Current History*(October 1995), pp. 305~310; Anders Aslund, "The Russian Road to Market," *Current History*(October 1995), pp. 311~316.

하여 한층 심각한 경제불균형과 축소성장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등의 구 소련 지역 공화국들의 예가 대비된다.³⁹⁾ 이에 대하여 반대자들은 급진주의자들의 개혁 개념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급진주의 전략이 급진주의적 전략가의 주도하에 현실에서 실제로 집행된 경험이 있다면 진화론적 전략은 진화론적 전략가의 책임하에서 현실에서 집행된 경험이 없다. 진화론적 전략가들은 중국에서의 개혁이 사후적으로 보니까 진화론적 전략이라 간주할 수 있음을 발견했을 뿐이다. 따라서 진화론적 전략은 그 현실 적용의 책임과 평가에서 면제되어 있다.

39) Aslund, "Lessons of the First Four Years of Systemic Change...", pp. 22~38.